

고은 불교대하소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모자라 보는 것이다 보살은 혼자 있을 때는 허깨비이다

기 짝이 없다.
아니 1년 뒤에도 그것을 깨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 버린다. 5년도 10년도 넘겨서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 차이를 떠난 소녀가 잠자 시집가서 아이들을 낳은 늙은이 아내가 되었을 때 실로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피운 기

그의 눈과 그의 귀는 진작 멀고 가까움을 여한 나머지 10만억국토의 이쪽에서 가고 있는 중생을 맞이할 수 있음이 아닌가.
그렇지만 바다 건너 그 어디에 있다는 보타락가의 섬이야말로 한번 건너가 보아야 할 하나의 궁극이 아니겠는가.
중생은 극(極)에 다달아야 한다. 즐거움의 극, 괴로움 슬픔 아픔의 극에 다달아보

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다 건너 수공선의 어딘가에 떠있는 까마득한 섬에 혼자 머물고 있기도 한 것이다.
상수야말로 바로 그토록 바다 건너 먼 곳에 있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은 새로운 관세음보살을 만나기를 그의 열렬한 서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살아서 그 보살의 섬에 가 닿을 수 없게 되었다.

바다 건너 누가 있으리

억 속의 차일 덩어리를 파보았다.
거기에서 거의 흩어 되다시피 활짝하게 발효된 차를 파내어 우선 코에 대본즉 흥남새 밖에 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차를 끓여 한 모금 마셔본즉 그 차맛이야말로 어느 차맛에 견줄 수 없게 그윽하였다.
그런데 그런 차는 혀의 미각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맛을 귀로 듣는 경지로 되어야 한다.
차의 향기를 귀로 듣는다! 이 얼마나 고도의 일이겠는가.

아아 한다. 그런 극이아말로 궁극의 보리(菩提)를 맞이하는 첫걸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상수는 그가 살아서 관세음보살의 섬에 건너가고자 하였다. 여덟모퉁이 된 그 아무도 없는 섬, 그러다가 홀연히 나타나서

“그렇게 둘러대는 수작은 또 무슨 살미친 오소리 소리인가.”
“해가 언제 왔다고 지금 해가 진다고 말하는가.”
“해라는 것이 햇것일세.”
이런 속절없는 말놀이가 있는 것도 무욕도의 자유였다.
이제 상수의 시신 앞문은 무욕도의 새벽 생들로 씻어내어 거기에 얹은 두명천을 한번 감았다. 굳이 관에 넣을 것도 없

가 오빠의 시신이 떠나는 것을 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그나 자신의 슬픔 때문이 기보다 무녀가 그녀한테 시킨 노릇이기도 하였다. 세속의 오누이라는 것으로 관세음보살의 섬으로 가는 오라바나의 서원을 슬픔으로 바꾸어 버리지 말자는 것이었다.
“자아” 라고 대해가 큰 소리로 바다 위로 섰대질을 해서 때를 움직였다. 대해 효영 명호가 탄 때에 이끌려서 상수의 작은 때가 주인 뒤를 따라가는 중생이처럼 잘 나아갔다.

파도가 일렁거렸으나 때의 앞이 그런 일렁거림을 몰았다.
무욕도의 대충은 그 자리에 선채 차츰 멀어져가는 상수의 바다 위 정령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갈매기 몇마리가 그 때의 행렬을 따라 날고 있었다.

“진정 무욕도는 관음도량이었다면 바가 되살아났어요. 상수님께서 새 도량을 열고 가시는 것이요” 라고 무녀가 그녀답지 않게 눈에 눈물을 조금 담고 말하였다.
어느새 상수영지도 슬며시 발채 뒤에서 나타나 무녀 앞에서 젖은 눈으로 상수의 때가 저만치 한 걸음도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해들은 난바다에서 더 깊이 먼 바다를 향할 수 밖에 없었다.
“어디에 여덟모퉁의 섬이... 보타락가의 섬이 있던 말인가? 내 책은 갈치눈으로 보자니 어디에도 그 따위 섬이 보이지 않는다 단 말일세.”
그때 효영이 나섰다. 이제까지 한번도 입을 열지 않은 슬픔으로 친구의 죽음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섬이 있거나 없거나... 상수는 그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해가 그런 말에 약간 공뿔었다.



비장한 서원 있어야 먼곳에서 기다리는 보살과 만날 수 있다

나 중생이 있는 곳에 그 보살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선사(禪師)는 산의 풍광을 관세음보살의 눈이라 했고 물의 소리를 관세음보살의 귀라 하지 않았는가.
이런 보살인자라 먼 바다 건너의 어느 섬에만 있는 보살이라면 그 보살을 어느 중생이 건너가서 만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중생은 그런 보살을 찾아가는 정성 없는 보살을 만날 수 없어야 한다. 그런 중생의 비장한 서원에 의해서 먼 곳에서 기다리는 보살과 만나 마침내 그 보살과 하나가 되는 것이리라.
그 뿐이 아니었다. 아무리 바다 건너 먼 곳의 외딴 섬에 있는 관세음보살일지라도

“이제까지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잘 왔네. 잘 왔네” 라고 환영할 때 거기에 건너간 중생은 이미 중생의 옷을 벗은 보살의 반열(班列)에 들음이 된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얼굴에는 이런 반가움이 아니다. 아니, 그러서는 이승의 무욕도에서 만난 무녀가 저승의 관음이기도 하였다.
때로는 중생에 대한 노여움을 품은 얼굴도 있고 슬프디 슬픈 얼굴도 있다. 그야말로 중생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인 얼굴인 것이다. 그래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40개의 손에는 각각 그 손끝에 눈이 달려 있기도 하다.
이런 관세음보살이 항상 중생의 몸가

“이... 들... ”
“이제까지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네. 잘 왔네. 잘 왔네” 라고 환영할 때 거기에 건너간 중생은 이미 중생의 옷을 벗은 보살의 반열(班列)에 들음이 된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얼굴에는 이런 반가움이 아니다. 아니, 그러서는 이승의 무욕도에서 만난 무녀가 저승의 관음이기도 하였다.
때로는 중생에 대한 노여움을 품은 얼굴도 있고 슬프디 슬픈 얼굴도 있다. 그야말로 중생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인 얼굴인 것이다. 그래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은 40개의 손에는 각각 그 손끝에 눈이 달려 있기도 하다.
이런 관세음보살이 항상 중생의 몸가

그 시신을 태울 자그마한 때를 엿다. 그 때 위에 시신을 묶어 고정시켰다.
무욕도 대충이 다 바닷가의 벌채 마당에 모였다. 풍을 쳤다. 누가 그 풍치는 소리를 헤아리고 있었는가. 그 풍소리가 멈춘 뒤 인당이 입을 열었다.
“가시게.”
우너도 한 마디 하였다.
“잘 가시오.”
심지어 소년행자 우식과 만우도 한 마디 하였다. “잘 가십시오” 라고.
그런데 때에 타고 상수의 작은 때를 이끌고 가는 일은 대해와 효영 명호가 맡았다.
상수영자는 차라리 발채 모퉁이로 돌아

명호가 말하였다.
“이 부근에서 작별하십시오. 우리도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의 때 위에서는 무욕도나 육지의 어느 곳도 보이지 않는 난바다의 한 복판이었다. 뒤따라오던 홀한 갈매기들도 대이상 보이지 않았다.
섬은 끝내 없었다.
아무도 다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해가 그들이 탄 때와 상수의 시신을 태운 작은 때를 연결시킨 발톱을 풀어버렸다. 상수의 때는 혼자 파도에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림·조향숙



100

상 수의 장례는 그의 열렬대로 바다 건너 그 어디에 있는 여덟모퉁의 섬에 실려 보내는 것으로 되었다. 그 섬에 관세음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관세음보살은 그토록 바다 건너의 먼 곳에 머물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런 보살은 보살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일까?
아닐 터이다.
아닐 터이다.
보살이란 저 혼자 있을 때는 도무지 허깨비인 것이다. 보살이야말로 중생의 고통에서 그 중생들 속에 있을 때 보살이 아니겠는가.
그런 보살이 중생의 허없는 벗과 이웃하다가 중생 그 자체가 되고 중생의 괴로움이 되어 마침내 그것을 벗어나는 자비의 생명체로 하여금 보살과 중생의 이쁨이 없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보살은 언제나 중생을 품고 사는 것이다.
관세음보살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그 소리를 보는 것이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일야말로 그 소리의 외의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
어찌 이런 절절한 보살의 자비만이겠는가.
저 남방의 한 은거자에서는 건계(乾季)가 다할 무렵의 연한 차일과 그 여린 손을 따서 한 덩어리씩 동자 진흙 가운데 파묻어버린다.
올래의 것이라 해서 올래가 다하기 전에 꺼내어 차를 달이는 노릇은 경망스럽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신비의 佛塔다라니”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 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佛(기)가 계속적으로 명송되고 있습니다.
② 이 佛(기)는 실존하는 불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작용력이 현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는 위신력을 발휘하여,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佛(기)의 흐름이 갑자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佛)는 사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명송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최적으로 막힘 없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 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일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佛(기)의 흐름을 세게 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판정할 수 있으며 조상영의 원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 조상영의 명사가 원도여부...
● 하고자 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무슨 일을 하던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 현재 살고 있는 생활은 나은 것인지? 언제까지 이를 것인지? 등 어떠한 일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에 책이 넣고 기(佛) 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佛(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佛(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기(佛)가 나오면 성공률(80~90%)은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佛(기)가 나오지 않으면 2개월이상 불탑다라니 佛(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 또한 우주공간에는 수많은 은산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아슬아슬하게 조금이라도 한눈을 뜨면 인간의 몸이 파괴되고, 권력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돌고 있는 일이 없고, 집안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키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씩 원도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100일 정도 지내면 모든 영들이 원도되어 떠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⑤ 불탑다라니를 부처님께 대한 전심전 의도와 열의로 하고 단순히 무조건으로 생각과 사용하는 것이나, 마음고민에는 열의가 일어나지 않고 佛(기)가 전혀 발현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佛) 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보조원에게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세상에 대한 열의가 그것을 미끼로 소멸시켜 주는 방법으로 신도들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스리거나 불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佛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 영험록 사제 및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상영의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는 신문을 복사요청은 가능한 할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산, 경남지역에 대한 불교 상담 문의는 **보문포교원 (원장 작당)**
부설: 불교바라길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재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 (051)864-3740
■ 기타지역 상담 문의 및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증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불부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14k 0.5MC 특수도금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진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헌증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정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